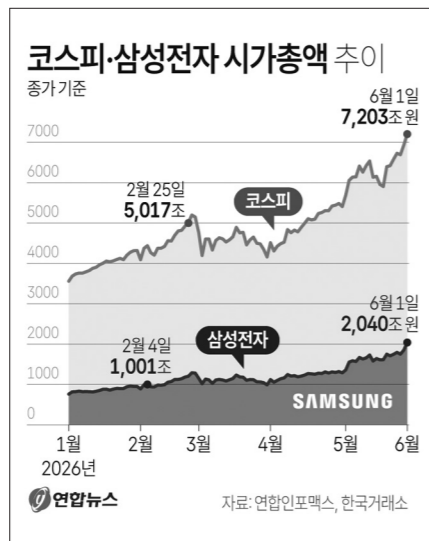


'9000피' 향하는 코스피...시총 7000조 돌파

'8788.38' 또 최고치 경신 외국인은 17거래일 순매도 삼성전자 장중 35만원 터치 젠슨 황 방한에 LG전자 급등



반도체주 강세를 앞세운 코스피가 신고 랠리를 이어가며 8800선을 터치했다.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10.09% 급등, 장중 35만원을 넘어지며 지수를 이끌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방한 기대감에 LG전자와 네이버도 급등했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12.23p(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쳐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52p(0.11%) 오른 8485.67로 출발해 직전 거래일(29일) 기록한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8476.15)를 갈아치웠다.

이후 사상 처음으로 8500선을 넘어선

뒤 차례로 8600선, 8700선, 8800선마저 돌파했다. 장중 한때 8874.16까지 치솟기도 했다.

'9000피(코스피 9000)'까지는 이날 종가 기준 211p. 장중 고점(8874.16) 기준으로는 125p가량만 남겨둔 상태.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7204조5094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74억원, 2조53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2조9204억원 순매도하며 지난날 7일 이후 이날까지 17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2~25일(18거래일 연속순매도) 이후 14년여만에 최장 연속 순매도 기록이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76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린 AI 콘퍼런스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자사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탑재됐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린 분위기다.

아울러 이날 개장 전 공개된 5월 한국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점도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속되는 증동의 지정학적 긴장 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상단은 일부 제한됐다.

지난 주말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이란 측이 즉각 보복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장중 전해졌다.

최근 코스피 오름폭이 컸던 만큼 단기 고점 부닥이 상한선 점도 매수세를 자극

는 모양새다. 지난달 월간 코스피 상승률은 28.5%에 달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10.09%)가 급등, 장중 사상 처음 35만원을 넘어지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은 역대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1.29%)도 장중 239만 80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아울러 현대차(3.73%)도 상승해 코스피 시가총액 4위를 회복했으며, 삼성생명(5.53%), 삼성물산(5.20%), 두산에너지(1.23%), 삼성바이오로직스(1.03%) 등도 올랐다.

직전 거래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 기대감에 급등한 LG전자는(29.86%)가 이틀째 상한가에 장을 마쳤으며, NAVER(16.03%)도 급등세를

이끌었다.

반면 직전 거래일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던 삼성전자는(5.74%)는 급락해 시총 5위 자리로 밀려났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2.98%)도 장중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반락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0.66%), HD현대중공업(-1.72%), 현대모비스(-0.91%) 등도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77p(2.30%) 내린 1050.0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03p(0.19%) 하락한 1072.77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한때 1043.91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66억원, 2913억원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794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업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부동산 탈세 제보 780건...광주국세청 44건

신고센터 5개월간 수도권 81% 몰려...최대 40억 포상금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는 44건이 접수됐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래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중 633건(81%)이 서울·충부·인천 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

에 그쳤다.

월별 건수는 △지난해 11월(136건) △ 지난해 12월(129건) △올해 1월(291건) △2월(98건) △3월(126건) 등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다양화되는 데다, 온라인상 허위 질세 정보가 퍼지면서 당국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000만 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단기간에 신고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국민의 감시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단순 접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아 기자 aura@



한전KPS 직원들이 광주송정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위기극복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함께 극복" 한전KPS 캠페인

광주송정역서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12대 지침' 홍보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광주송정역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세계 에너지 공급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 지혜와 어려움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전KPS 임직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송정역에서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사용 등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12대 지침을 중점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과 더불어 한전KPS는 자체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26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사용 효율화, 에너지절약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내외 교육·홍보 강화 등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력그룹사의 일원으로서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전내외 자체 에너지 사용량 5% 절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찬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1일 대촌농협 대강당과 힐링가든 휴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나섰다.

농협 광주본부,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 광주대 학생·주부모임 회원 등 60여명 재능기부 동참

농협 광주본부는 1일 대촌농협 대강당과 힐링가든 휴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기존의 일회

성 농촌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전문성과 재능을 농촌 활력으로 연결하는 상생형 농촌기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광주대학교 학생 30명,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 30명 등 재능 나눔에 참여하는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단은 보건·의료, 스포츠재활, 뷰티, 농촌체험활동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혈당 검사, 스포츠재활 분야에서는 통증 완화 마사

지를 제공했으며, 뷰티 분야에서는 네일케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참여자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린 맞춤형 재능 나눔이 이뤄졌다.

광주본부는 하반기 중 국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참여자 간 소통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동농 상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음식점·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시범사업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음식점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와 통신판매업체의 PC 주문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 알람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재료 원산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영업자의 단순 실수나 법령 미숙지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

반을 줄이고, 사후 단속 중심의 행정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점과 통신판매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

례가 늘어나면서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은 영업자가 매일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자동 팝업 방식의 자가진단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팝업창을 제공하고, 매월 1일에는 필수 자가진단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항목은 원산지 표시 정보 일치 여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시 위치 준수 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여부 등 핵심 사항 위주로 구성된다. 영업자는 간단한 점검을 통해 표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전남지원은 상반기 중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통신판매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업체 선정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지원은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소상공인의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하반기 청년 일경험 '드림터' 모집

17일까지 신청 접수...참여 청년 인건비 90% 지원

광주시는 올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20기 드림터(사업장)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지역 사업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광주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업단지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신청 사업장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련 인종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제20기 드림터는 오는 8월 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

는 이 기간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직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기회를, 사업장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청년을 1년 이상 정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연계 채용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사업장에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청년과 함께 성장하며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지역 기업과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